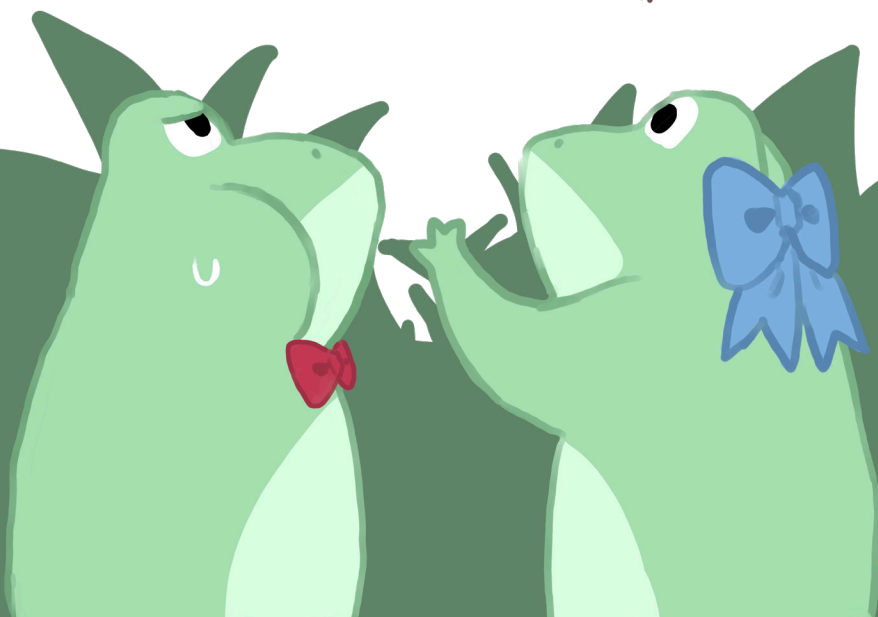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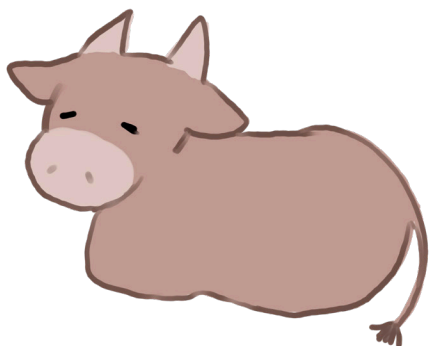


쏘처럼 커지고 싶은 개구리

글. 그림 임호은



"개굴개굴~ 개골개골~"

연못은 개구리들의 놀이터지요.

왕방울 개구리가 풀잎 위에서 물웅덩이 속으로 퐁덩 뛰어들었어요.



“에잇, 이것도 시시해~ 애들아 우리 여기를 벗어나 땅으로 나가보자”

왕방울 개구리는 친구들과 함께 땅으로 폴쩍 뛰어올랐어요.

“재미있고 신나는 게 많을 거야!”

왕방울 개구리는 신이 나서 벌판으로 달려갔어요.



동물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던 개구리들은 어느새 넓은
벌판에 도착했어요.

그때 벌판에 누워있는 황소를 보고 왕눈이 개구리가 소
리를 질렀어요.

“와, 정말 크다!”

개구리들의 눈이 뿡 튀어나왔고
입은 크게 딱 벌어졌지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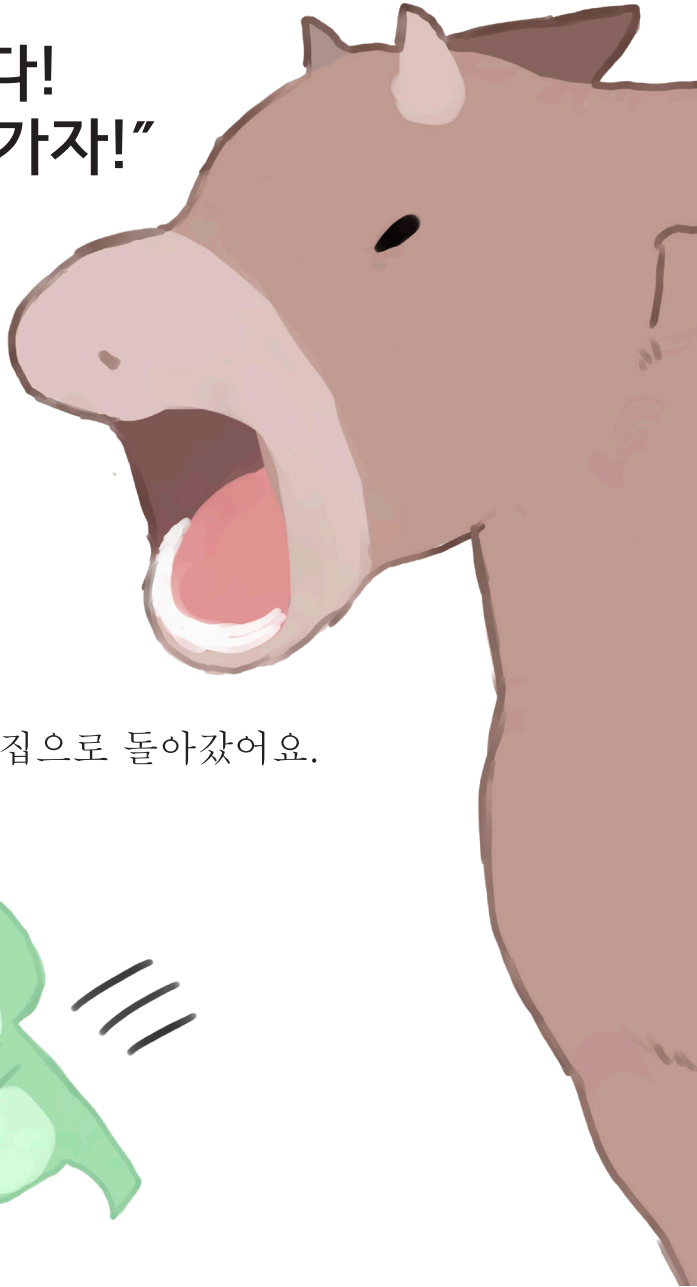




"음메에~"

황소 울음소리에 땅이 찌렁찌렁 울렸어요.

"으악! 무섭다!
집으로 돌아가자!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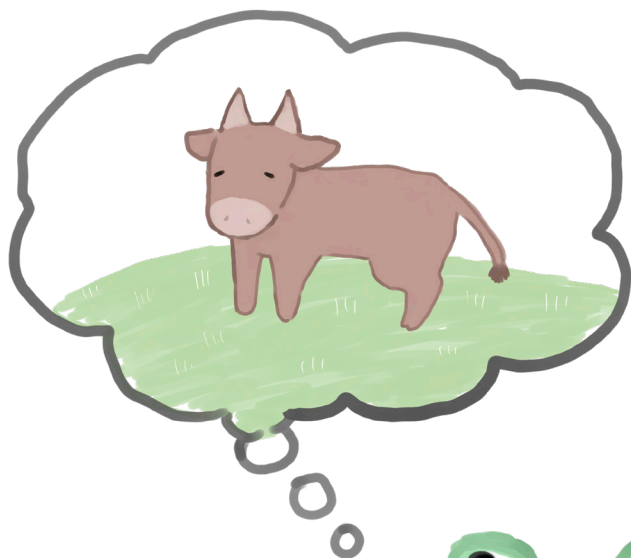


개구리들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어요.



왕방울 개구리는 집에 돌아와서도 별판에서 만난 황소가 자꾸 생각났어요.

**‘황소처럼 몸집이 크면 얼마나
좋을까?’**



그러더니 왕방울 개구리는 동생 왕눈이 개구리가 보는 앞에서 벌렁 드러누웠어요.

“잘 봐, 내 배가 얼마나 커지는지!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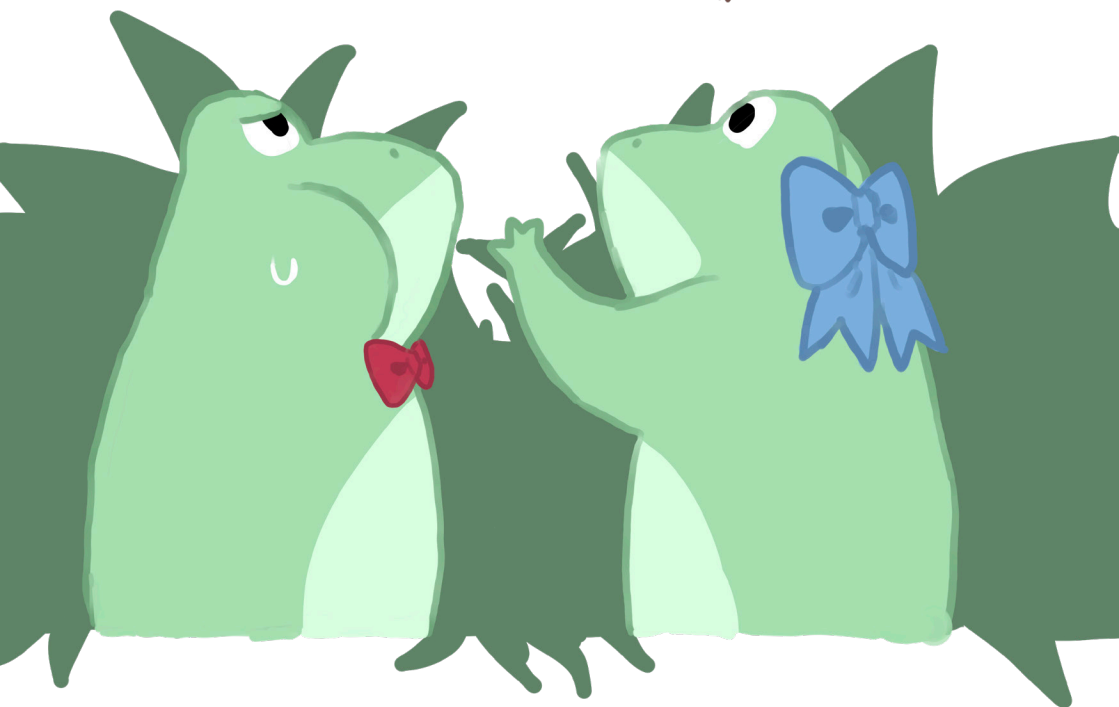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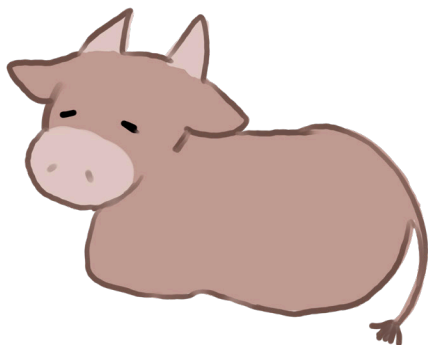
왕방울 개구리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.

동생 왕눈이 개구리는 웃음을 터뜨렸어요.

“언니 배가 달걀만하다!”

왕방울 개구리는 왕눈이 개구리와 함께 다시 수풀로 가서 황소를 보았어요.

왕방울 개구리는 다시 흐으읍~ 하고 숨을 들이마셨지요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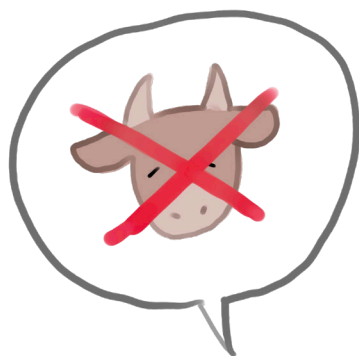
왕눈이 개구리는 아직도 멀었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내저었어요.

“그만 해, 언니가 아무리 배를 부풀려도 황소만해질 수는 없어.”

왕방울 개구리는 그래도 계속 숨을 들이마셨어요.

배가 점점 풍선만해지더니 갑자기 따끔따끔 아파왔어요.

더 이상 숨을 쉬기도 힘들어졌지요.



왕눈이 개구리가 계속 말렸지만 왕방울 개구리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.

바로 그 때였어요!



왕방울 개구리의 배가 펑! 하고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.

*왕방울 개구리도 황소처럼 커지고 싶었어요.

하지만 모두 각자의 크기를 인정하며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.
결국 불쌍한 왕방울 개구리의 배는 펑 하고 터지고 말았지요.

쓸데없는 욕심이 아주 슬프고 무서운 결과를 가져 온 것이랍니다.

생각 속속! 동화 이야기

